新발굴 '용성 만일결사 방함록' 살펴보니

김광식 교수, '용성 사상의 재인식' 세미나

백용성 스님〈사진〉은 1925년부터 1927년까지 '참선만일결사(이하 만일결사)'를 추진해 간화선풍 진작을 도모했다. 스님의 만일결사는 근대기 선지식이 만일이라는 오랜 기간 결사를 주창했다는 데 많은 시대적 의미를 갖지만, 학술적으로 조명되지 못했다. 또한, 결사 참여 수좌의 개요 등이 파악되지 않아 연구에 어려움도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발간된 〈백용성 대종사 총사〉는 용성 스님의 심층적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특히 7권인 '신발굴 자료' 편에는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이 제공한 만일결사 방함록이 수록돼 관련 연구의 폭을 넓혔다.

4월 7일 평택 명법사와 대각사상연구원이 개최한 '백용성 사상의 재인식' 학술세미나에서는 새로 발굴된 만일결사 방함록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당시 불교잡지 〈불교〉 14, 15호의 선전문을 통해 만일결사의 목적, 운영 등을 조명하고 결사의 근간에는 선과 계율을 겸행(兼行)하는 지향점이 있음을 분석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총서에 공개된 만일결사 방함록을 분석해 결사의 규모와 진행 과정을 추론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첫 시작인 1925년 동안거 방함록에는 조실 백용성, 수좌 설석우(동화사)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설석우는 금강산권

1925~27년 만일결사 방함록
총서 신발굴 자료 통해 조명
초기엔 전국 수좌 36명 참여
내 · 외부환경 영향 동력 감소해
"용성 만일결사, 禪律兼行 바탕"

불교에서 수행한 중견 수좌로 1955년 9월 조계종단 종정에 추대됐다. 총 동참 인원은 36명으로 애초 공고했던 30명보다 조금 초과해 안거에 들어갔다. 외호대중까지 전부 합치면 55명이 참여했다.

1926년 3월에는 첫 수행처인 망월사에서 천성산 내원암으로 이전한다. 이어진 1926년 하안거에는 57명에서 55명으로



줄긴 했지만, 별 차이는 없었다. 다만, 독경 소임이 새로 추가된 것은 특이할 만한 점이다.

하지만, 1926년 동안거에서는 총 인원은 25명으로 축소됐고, 수행자는 14명에 불과했다. 1927년 하안거도 상황은 비슷했다. 총 대중은 27명이었고, 수행자는 17명만이 동참했다.

그렇다면 만일결사는 왜 3년 이상을 진행되지 못했을까? 김 교수는 망월사에서 내원암으로 수행처가 6개월만에 변화, 엄중한 규율의 결사를 당시 수행자들이 수용하기 어려웠던 풍토 등을 요인으로 제기했다.

실제, 용성 스님이 경봉 스님에게 보낸 서한에 보면 결사를 시작한 이후 1만원(현재 5억원)의 거금을 소진했고, 현재 수좌들이 결사의 규칙과 자신의 지휘를 따르지 않음을 개탄하고 있다.

김 교수는 △결사회의 재정 악화 △수좌들의 나태한 수행 자세 △불교 개혁 · 불사 중첩 등 용성 스님이 결사에 주력하지 못했던 현실을 지적하며 "용성 스님의 중첩된 불사도 문제지만, 나태한 수좌들이 더 문제였다"면서 "결사회에 동참한 수행자가 의지 박약, 규칙 방치 등을 보여준 것은 결사라고 볼 수 없는 모순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용성 스님의 만일 결사는 치열한 선 결사 · 엄중한 규칙 · 선율겸행이라는 독특한 지향 등 의의가 상당하다"며 "이는 결사 추진자인 용성 스님의 불교 · 선 · 계율 사상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행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도문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죽림정사 조실)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경위 및 성격(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전북 · 강원 寺址 모든 것 담다

문화재청 · 불교문화재硏 〈한국의 사지〉 보고서 발간

231개소 사지 현황 등 수록



문화재청과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의 사지-전북 · 강원〉

전라북도와 강원도 지역의 폐사지를 조사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은 "'2016년도 폐사지 기초조사사업'의 성과를 담은 〈한국의 사지- 전라북도 · 강원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 강원도 지역은 2013년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사지를 대상으로 1차 조사가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국가지정문화재(사적)나 시도지정문화재(기념물)로 지정된 익산 미륵사지 · 원주 법천사지 등 29개소와 석탑 · 불상 등 문화재가 있는 사지 202개소 등 총 231개소를 조사했다.

이번에 발간된 〈한국의 사지-전라북도 · 강원도〉는 폐사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사역(寺域), 식생(植生)과 유구 · 유물 현황,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좌표 등 다양한 정보를 정리하여 수록했다.

원래 절터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된 문화재를 조사한 내용을 포함했고 일제강점기 자료 등 개별 사지에 대한 정보를 망라해 역사 · 학술적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2012년부터 제작한 '사지 분포현황 지도'를 별책으로 수록해 사지의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지에 대한 항공사진, 세부사진과 출토 문화재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각적 효과를 살린 것도 이번 보고서의 강점이다.

〈한국의 사지-전라북도 · 강원도〉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대학도서관 등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국민이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폐사지 기초조사사업은 2010년부터 전국에 소재한 폐사지를 대상으로 진행중이며, 조사 결과는 앞으로 사지와 소재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 관리 ·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올해는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지역의 350여개소의 사지를 조사한다.

신성민 기자

천년고찰 향천사 문화유산 조명한다

동북아불교미술硏 15일 학술대회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는 오는 4월 15일 예산 향천사 서선당에서 '예산 향천사의 문화유산'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천년고찰 향천사의 불상, 전적, 부도 등 주요 성보문화재들에 대한 전문적인 학술연구들이 대거 발표된다.

주요 발표로는 △최선일(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의 '향천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연구' △김규순(대한풍수연구원)의 '금오산 향천사의 풍수지리적 함의- 지명 지리학적 요소를 중심으로' △김종민(문화재청)의 '향천사 소장 전적 연구' △홍은미(옥천사 성보박물관)의 '조성된 향천사의 불교회화 연구' △김정원(불교문화재연구소)의 향천사 석조부도 연구 등이다.

한편, 향천사는 천불전, 극락전 등의 주요 전각을 비롯해 창건주 의각 스님 부도와 임진왜란 당시 승군을 조직해 금산전투에 참가했던 멸운 스님의 부도 1기가 전해진다.

신성민 기자

'경주 남산 용장계 삼층석탑' 보물 지정

문화재청, 4월 5일 밝혀
용장사와 관련 있는 석탑
'전탑형 석탑' 계보 보여줘

9세기경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남산 용장계 제3사지 삼층석탑'〈사진〉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35호로 지정했다"고 4월 5일 밝혔다.

이 탑은 전탑형 석탑으로 8개의 커다란 사각석재를 기단으로 구축하고 옥개석이 하나의 석재로 이뤄졌으며 별다른 장엄장식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전형적인 통일신라 석탑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에 관한 문헌기록이 없어 용장계 지곡 삼층석탑이 언제 건립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나오지 않았으나 탑지 주변에서 '용(茸)' 자명을 비롯한 9점의 명문와가 출토돼 용장사(茸長寺)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용장사지(탑상곡 제1사지)에는 삼층석탑과 마애불좌상, 석불좌상이 전해오며, 그 일대에 여러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지곡 제3사지에서 출토된 와당을 비롯한 여러 유물들로 미루어보아 이곳의 사찰이 통일신라 9세기 후반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석탑지 주변에서 출토된 분청사기 조각과 백자 조각 등은 고려 시대를 거쳐 조선 시대까지 사찰의 법등(法燈)이 이어져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의 전탑은 경북 안동에 많지만, 전탑과 유사한 벽돌형식 석탑은 경주지역에 집중돼 지역별로 구분되는 양상이 있다.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은 경주 서악동 삼층석탑(보물 제65호)과 경주 남산동 동삼층석탑(보물 제124호) 등과 함께 남산 주변의 산록에서 만들어진 장소적인 특징도 있어 한국석탑에서 또 다른 '전탑형 석탑'의 계보를 이룬다.

문화재청은 "일부 파손되었으나 상륜부가 남아있고, 전체적인 외관이 양호한 편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보물로 지정된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이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명상 상담 노하우 공개한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10주년 행사 '풍성'

22일 학술대회 및 포럼
일선 현장 상담사례 발표

학교와 기업, 복지관 등 일선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명상 상담의 노하우를 접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회장 인경)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오는 4월 22일 서울 종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학술대회와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간 명상 상담 분야의 성과와 연구사를 정리하고 기업 · 학교 · 템플스테이 · 복지관 등에서 어떻게 명상 상담이 활용되는 지를 살피는 발표들이 이뤄진다.

오전에 진행되는 학술대회에서는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장이 '심리학과 심리상담분야서 바라보는 명상 상담'을, 이필원 동국대 교수가 '10년간 명상 상담의 연구사' 등을 주제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김동한 동국대 외래교수, 박재용 덕성여대 연구교수가 참여한다.

오후에 열리는 명상 상담 포럼에서는 곽노숙, 장금주, 허수미, 동진 스님 등이 △기업에서의 호흡명상 활용사례 △청소년 대상 명상 상담 △사회복지현장에서의 명상 상담 활용 사례 등 다양하면서 구체적인 명상 상담 사례를 대중에게 공개한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불교국제박람회에서 호평받은 '108애니어그램' 검사와 인경 스님, 지오 스님, 이필원 교수의 저자 사인회도 열린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장 인경 스님은 "명상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지난 10년 간 학회의 연구와 상담 노하우를 통해 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법당의 앰프, 스피커, 마이크 일부교체 및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진단, 설치하는 관계로 일주일에 사찰 3곳만 방문 가능하오니, 초파일을 앞두고 미리 상담, 출장 예약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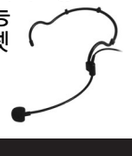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대출력 믹싱앰프



● 신상품 ● USB · MP3 PLAYER



보급가 : 145,000원(USB칩 포함)
엠프 스피커 포함 : 235,000원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 자체에서 소리조절 오래된 엠프와도 잘 맞습니다.



● CD기기 (5개연속사용)

【특별판매】 가격 : 350,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1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제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4월 30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